

⑥

제목 : <계간지를 창간하며>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내년도 12월이 되면 이 나라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의 1호일 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성재단이 출범식을 맞이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개척자의 난관을 극복해야 했던 여성재단과 척박했던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부문화에도 속도는 느리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8년여 동안 재단이 그의 기본 기능인 모금하는 일과 배분하는 일을 거듭하면서 견져 올린 성과는 돈, 재능, 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통해 인연이 닿은 수십만의 재단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원으로 이 땅의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성평등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400여개의 파트너단체를 줄잇게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단은 우리 사회에 나눔과 돌봄의 문화를 싹틔울 수 있었고 기부문화 확산의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십사일반의 소액기부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기반의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었으나 아직도 큰 손들의 기부는 개인 기부라기 보다는 법인인 기업기부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기부풍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로 받아들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하는 한 기업경영의 수칙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의 규모를 크게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직접 사업으로 소진하거나 편중된 배분으로 기부문화에도 양극화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재단 친구들 통해 보면 여기에도 여성들이 최절해야 하는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 차제에 지금까지 재단의 미션과 활동을 홍보하는 기관지로서 발행되는 알파한 원간 소식지를 그 발행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후한 내용을 담은 계간지로 탄생한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크게 자축할 일이다. 올바른 기부문화, 성평등한 기부문화 조성, 기부자와 파트너단체간의 나눔과 소통 그리고 여성재단의 존재의미를 사회에 제고할 계간지 발행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준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⑦

세계 최대 무자은행인 월드뱅크가 1억달러(약 950억원)를 들여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전세계 여성 1만여명에게 경영기법을 가르친다(「한겨레」, 3월 7일자)고 하였다. 월드뱅크는 여성이 경제권을 잡는 것이 세계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펴낸 <여성은 하늘의 절반>이라는 보고서에서 신흥 경제권이 여성 교육을 강화하면 1인당 소득을 10%~14%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를 견인해내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여성경제력이 국제경쟁력이라는 것은 원칙이 밝혀진 바 있다.

남녀임금 격차가 세계 최악수준 (63개국 중 4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실정은 빈곤의 여성화를 부추기고 그리고 기부문화의 성차별은 여성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걸림돌들을 외면한채 선진국됨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여성운동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단체 활동 지원, 실무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에 우선 노력하는 한국여성재단의 첫 10년을 마무리 하고 또 하나의 10년 역사를 여는 일에 이번 창간되는 계간지가 크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최고부도에 이르러서
세계 최대 무자은행인 월드뱅크가 <여성은 하늘의 절반>이라는
보고서를 펴내서 여성이 경제권을 잡는 것이 세계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후에 이 내지 세계의 주체가 '여성에 대한 권리'이다. 한국의 여성
의 경제권력이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의
경제권 세상의 변화를 견인해내는 변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경제력이 국제경쟁력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